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돌풍...광주 백색가전 산업 훈풍

훈풍 돌풍 신개념 세탁기 이어 후속 백색가전 줄줄이 출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풀가동...지역산업 수출·가동률 증가

지역 '백색가전' 산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에 빠졌던 지역 백색가전 산업은 삼성전자 신제품 흥행에 힘입어 반등하는 모양새다. 특히 삼성전자 백색가전 생산기지인 광주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가동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스포크 AI 외에도 백색가전 라인업을 속속 늘려가며 업계 선두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백색가전 '돌풍' - '엑셀 밝는다' =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울인원' 세탁건조기인 비스포크 AI에 이어 2024년형 건조기 신제품을 선보이며 이른바 '풀 라인업'으로 국내 시장 공략 강화를 나섰다.

삼성전자는 출시 12일만에 3000대가 팔려나간 신개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이을 후속 백색가전으로 국내 최대 22kg 건조용량을 갖춘 2024년형 '비스포크 AI 원바디 탑덱'과 '비스포크 AI'를 차례로 출시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합쳐 공간 활용도를 끌어올린 '비스포크 AI 콤보'에 이어 상하 일체형으로 컴팩트한 디자인과 편의성을 끌어올린 '비스포크 AI

데 AI 원바디 탑덱', 구조에 따라 상하·좌우 원하는 대로 배치 가능한 결합형 '비스포크 AI'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는 계획이다.

먼저 2024년형 비스포크 AI 시리즈는 건조용량을 늘리고 인공지능 맞춤건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내 최대인 세탁용량 25kg·건조용량 22kg을 갖췄다. 소비전력량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20% 더 낮다.

또 AI 맞춤건조를 통해 건조기 내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세탁물의 재질을 면, 데님, 타월, 합성 섬유 등 4종류로 직접 분류해 이에 맞는 최적의 건조기능을 제공한다.

22일 출시된 '비스포크 AI 원바디 탑덱'은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 5가지 색상으로 선보이며 오는 29일 출시되는 '비스포크 AI' 건조기도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백색가전 생산, 홍보에 가속을 걸며 전국 주요 랜드마크 20곳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옥외광고를 게재한다.

삼성전자는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비롯해 서울 코엑스, 파미에스테이션, 강남역, 스타필드 수원,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대

구점 등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옥외광고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비스포크 AI 콤보' TV 광고를 공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색가전 전초기지 광주·삼전 인기에 활력 = 삼성전자는 백색가전은 광산구에 자리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에 당당히 호황을 맞고 있다. 당장 코로나19로 60%까지 떨어졌던 지역 산업단지 가동률은 최근 70%를 넘어섰고, 수출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지난해 12월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즐비한 광주 첨단산단의 가동률은 70.5%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첨단산단 가동률이 63.17%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7.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입주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499개였던 첨단 산단 내 전기전자 업체는 2023년 12월 522개로 5% (223개) 늘었다.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 8.3억달러를 기록한 광주는 특히나 세탁기 등 회전기기 등의 수출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15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 수출 호조로 광주의 대미(對美) 수출은 5억달러를 기록,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4일 서울 서초구 파미에스테이션에 비스포크 AI 콤보 옥외광고가 게재돼 있다. <삼성전자 제공>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오늘부터 청약제도 대폭 변경 부부 중복 당첨돼도 청약약 유효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 청약 기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KIA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성적 따라 우대 연 3.85% 금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4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지역 구단인 KIA 타이거즈의 'V12'를 기원하기 위한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광주은행이 대표 시즌 상품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판매하며 KIA 타이거즈의 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특히 올해 KIA 타이거즈 감독으로 14년 동안 팀에 몸 담았던 현역출신 이범호 감독이 공식 취임해, 지역 팬들의 우승 기대감이 올라감에 따라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이 흥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고, 기본 연 3.60%의 금리에 KIA 타이거즈의 시즌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85%까지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시즌 KIA 타이거즈가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0%

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기본 연 3.60%의 금리에 예금과 같은 조건을 통해 최대 연 0.2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역 소재 팀에 대한 응원의 열기를 더하기 위해 이벤트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0%p 추가 제공해 최대 연 4.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우대금리 조건은 KIA 타이거즈의 2024 정규시즌 기록에 따라 적용된다. 조건은 ▲20승 이상 투수 배출 시 연 0.10%p ▲팀 홈런 100개 이상 연 0.10%p ▲200 안타 선수 배출 시 연 0.20%p ▲최장 연승기록에 따라 최대 연 0.20%p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설레는 봄과 함께 찾아온 프로야구 개막 시즌에 지역민을 비롯해 야구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성료... '탄소중립'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부회장 최영환)는 지난 22일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탄소중립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제 164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윤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과 무탄소 에너지원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지만 우리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 국가로 탄소 저감이 어려운 상황으로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3분의 2의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으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며 "한국은 에너지 안보가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특정한 하나의 에너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를 최적

화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29일 정하연 전 과테말라 대사를 초청해 '마야문명 중심 과테말라, 이해와 도전'을 주제로 164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매주 금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

5대 시중은행 이사회 보고·의결 KB 1조 규모 총당부채 처리할 듯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 방침을 확정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총당부채·영입의 비용 인식) 규모는 KB국민은행의 약 1조원을 포함해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승인이 마무리되면, 은행권은 일제히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 관련

협의 시작할 예정이다. 비로소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배상 실무 단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추정하는 배상 규모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배상 관련 손실을 총당부채 등의 방식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승인하게 된다. 배상액 추정치 정부의 분쟁조정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의사회 결의는 대외적으로 '정부안 수용'의 의미도 있다.

일각에선 당국의 압박과 은행권의 일사불란한

후속 조치가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정부 배상안 수용과 배상 절차 돌입이 임박하면서, 각 은행이 추정하는 배상 규모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이사회를 거쳐 1분기 실적에 약 1조원의 H지수 ELS 배상 관련 총당부채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21년 1~7월 판매액이 5조2천억원 정도로 파악됐고, 현재까지 손실률은 50% 수준이다. 여기에 평균 손실 배상률을 40%로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KB뿐 아니라 타 은행들도 주로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진다. 6개 은행의 올해 1분기 관련 총당부채 적립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출 상품 홍보물 제작 지원 전남도 27일까지 40개사 모집

전남도가 '2024년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김, 모듬 해초, 화장품 등 도내 중소기업 40개 기업의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약 4000만 달러의 수출을 이끌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41.4% 상승한 규모다. 전남도와(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참여 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제품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 3개 분야다. 전남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제품 용기나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상의 컨설팅 지원 지역기업 86억원 납품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난해 '다수 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으로, 11개 기업이 수혜 받아 86억원의 납품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품질경쟁을 유도,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이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해 타사 제품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역원의 공공조달 납품실적과 더불어 기업이미지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2022년 196조원 규모, 국내총생산의 9.8%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2018년 141조원 대비 39% 증가했으며, 조달업체수는 2018년 40만915개사에서 2023년 57만2118개사로 42.7% 증가했으나

지역 중소기업은 정보부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지역기업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1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6	20	26	36	42	44	2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04,455,650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9,221,912	59
3	5개 숫자일치					1,519,043	3,07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163
5	3개 숫자일치					5,000	246,1430